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새 천년을 생명의 복음으로 맞을 준비해야

이제 1999년도 11월과 12월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20세기의 마지막 및 해를 세상과 섞이지 않은 복음 위에 세우고자 분투해온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정돈하고 2천년 새해를 개척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자칫 분주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충현의 온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듯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연말 교회 주요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연말 주요행사 일정

월	일	주요행사	시간	월	일	주요행사	시간
11	7(주일)	서리집사 후보추천의회		11	19(주일)	예배 헌금, 안내위원 임명(2부, 4부)	각 예배시 찬양예배후
11	(목)	서리집사 후보심의				교구 총회	
21	(주일)	교사 추천				남전전도부 총회(일역인 모임)	
		교구일꾼 추천				찬양대원 임명(1부, 3부, 5부)	각 예배시
24	(수)	교사·찬양대원·교구일꾼·온회·자·				예배 헌금, 안내위원 임명(1부, 3부, 5부)	각 예배시
		군속 포상장 심의				각 위원회 실행위원 임명	
12	12월중	각 위원회 총회		12	22(수)	교사총회	
		남전전도부 총회		24	(금)	교회학교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저녁 7:00
8	(수)	2000년도 일꾼 결정		25	(토)	성탄축하예배(1부 09:00, 2부 11:00)	
		온회 및 군속자 포상대상 결정		26	(주일)	특별제례회의(예찬·결산보고)	
12	(주일)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	4부예배시			온회 및 군속자 포상	찬양예배후
		교회학교 교사 임명	4부예배시			교회학교 수료식	찬양예배시
		찬양대원 임명(2부, 4부)	각 예배시				

오늘은 99년도 마지막 성찬식 1-5부예배시에

오늘은 1999년도 마지막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구주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통해 새 날을 위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

한편, 지난 10월 24일에 거행된 학습세례식을 통해 입교 및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오늘 성찬식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감사절 국제음식축제

“감사로 주께 나오자”

11월 21일 12시-3시

제2교육관 1층에서

영어교육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외선부 및 대학부와의 협력을 통해 친교와 전도 기회의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사역 협력 등을 위해 11월 21일(주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제2교육관 1층에서 국제음식축제(International Food Festival)를 연다. 이날 행사의 참가예상자는 약 5백명이며 이들은 참가하여 약 11개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몽골, 말리, 스리랑카, 미국, 우즈베키스탄)의 음식을 시식하면서 성도간에, 또한 외선부 근로자들과 교제하게 된다.

이 모임의 참가비는 2천원이며 초대권은 영어교육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다만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99 교사수련회 기도로 미리 준비하기

11월 22일과 23일(월, 화) 양일간 진행될 '99 교사수련회를 위해서 제1, 2, 3교육위원회 산하 모든 교사들은 기도로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

특히, 성령의 다스리심에 모두가 순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또한 특강 강사들과 기도 인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부서의 모든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합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교사수련회 준비위원회 행사 진행요원 기도회

일시: 오늘 오후 3시 30분 장소: 교육관 307호

대상: 교회학교 각부 부장, 지도, 부장, 처장

평신도선교사훈련원 하반기 집중강의 모두 마치

지난 9월 29일(수)에 시작되어 지난 11월 3일(수)까지 진행된 LMTC(평신도선교사훈련원) 하반기 집중강의 6주 과정이 모두 끝났다. 매주 수요일부터 화요일 8시부터 11시까지 6주 동안 진행된 이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은 50여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선교훈련을 위해 참여한 타교회 성도 6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성경적 선교신학, LAMP(선교지 언어습득) 훈련, 팀사역, 선교역사, 세계선교동향, 선교동원화, 외선부사역, 단기평신도선교, 비종교교파 등의 공부를 모두 마쳤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장차 단기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거나, 선교를 돕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교를 돕는 일에 앞으로 계속되는 LMTC 과정에 충현의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구별 태신자전도집회

아름다운 전도의 보고서 계속돼

각 교구별로 진행하는 태신자전도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목)에는 12교구 200여명의 교구 식구들이 함께 초청전도집회를 가졌다. 한편 15교구는 지난 5일(금)에 충현기도원에서 태신자 초청 전도잔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금주에는 7교구(9일)와 11교구(13일)에서 각각 태신자 전도집회를 가지면서 구령의 열정으로 인도된 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생명의 복음으로 섬길 예정이다.

성도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교구에 따라서는 새벽기도회와 릴레이기도회, 금식기도회 등을 통해 준비한 일꾼들의 수고를 하나씩 감싸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시도록, 그리고 교구 식구들이 기도 안에서 연합하는 이 전도집회를 통해서 주께서 부르신 태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하겠다.

차량안내부 가을수련회

차량안내부는 지난 10월 28일 저녁부터 29일까지 1박2일에 걸쳐 가을 수련회를 가지고서 기도회와 공동체 회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기로 결단하였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계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동역해야 하겠다.

금주의 태신자 전도집회

11월 9일 - 7교구

11월 13일 - 11교구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11월 13일 - 11교구

11월 기도원 담당 서광진 목사

하반기 정기감사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10월말 기준으로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11월중 감사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1999년 1-10월
2. 대상기관: 각 위원회 산하 전부분. 다만 남녀 각 전도회는 전도위원회의 감사를 받음
3. 제출서류: 시산표(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전체 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철, 시제 현금 또는 예금통장(인감 포함)
4. 감사실시기간: 11월 첫주일 - 11월 마지막주일
5. 감사실시장소: 선교관 404호



김창인 목사

보람있게 살고 간 요셉

(히브리어 11: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니”

꿈꾸는 요셉

요셉은 아람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12 형제 가운데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아 꿈은 요셉에게 채색뚜껑지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12형제가 나이가 곡식을 거두어서 한 단 한 단 묶어 놓는데 내가 묶어 놓은 곡식 단 앞에 11형제가 묶은 단들이 단에 절을 했어요. 형들은 그렇게 알아도 요셉이 미웠는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후 또 꿈을 꾸었다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의 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람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후 형들이 세월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17살 난 요셉에게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양을 치러 이곳저곳 다니는데 소식을 물러서 공급하다. 내가 다니오나라. 그리고 양떼들도 잘 있는지 알아 보아라.” “예, 다니오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가서 형들이 가 있다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그들이 도란으로 간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양떼를 치는 형들이 보였습니다. 요셉은 반가워서 한데 형들은 “채색 옷 입을 는 높이 온다. 이 창에 죽어 버리다!” 하며 무서운 음모를 꾸밈니다. 그런데 그 우애의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해내기 위해 직접 곡식을 이 밭고 땅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만류했습니다. 가 까스로 살인을 면하고 그들 감시 자리를 비켜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미다한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취하여 애국제 가기에 가족의 피를 적시 어찌하지 않고 가지고 가서 요셉이 잠중하네 잠자버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

이쯤 되면은 요셉은 자취도 없지 않고 찾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돌아보고 아버지는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요셉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는 의

로움을 이깁니다. 억울함을 이깁니다. 미다한 상인에 의해 요셉은 애국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었는데, 노예 생활에서도 땅을 홀려서 열심히 일합니다. 낙심한 자는 일을 못합니다. 요셉이 힘있게 일하는 것을 보니까 낙심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 일을 어찌 잘하는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너무나도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관리하는 지도권을 주었습니다. 최발단의 노예가 이제는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하고 이를 물리치자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였다며 오히려 요셉을 죄인으로 몰고갔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때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통곡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리하여 어리석은 장관은 음란한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또 버림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부모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내 나라도 아닙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라고 확신하면서 시련을 이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죄수로서 열심히 법을 지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열매하시고 인사를 하셔서 감옥의 전옥에서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 전옥이 옥중 복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까. 복수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취급할 수 있는 지도자, 이권 보호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는 안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요셉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얻어 주시는 때가 왔습니다. 감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장관 둘이 잡히고 갈렸는데 장관 둘이 꿈을 꾸고 얼굴에 수심이 짙었습니다. “장관들을 왜 얼굴에 수심이 짙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꿈 꾸었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하며 보십시오.” 그래서 설 말은 장관이 말합니다. 요셉이 다 들으니까 “신을 잊었다 당신은 복적이 됩니다. 그때 나에 이곳에서 석방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 그리고 말고, 복직한 되면 그러저.” 또 다른 장관이 말합니다. “장관님, 사흘만에 사형 집행

당하겠습니까?”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왕의 생일입니다. 왕이 즐거운 생일을 맞이하면 한 장관은 복직을 시켜서 장관이 다시 되고 한 장관은 목이 달려서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후 복직한 장관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 얼마 있다가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해몽할 자가 없었습니다. 박사들도 부르고 정경에도 불렀는데 해몽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아 비로소 감옥에 갇혔다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한 장관이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때 일을 고했습니다. 왕은 당장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았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으라 나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라.” “이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지마.” 요셉은 겸손하게 해몽을 하느냐면서 하시는 일은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대로 해몽을 하느냐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후 7년 동안 흉년이 들리라. 꿈을 두 번 쓴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곧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책으로 청렴한 사람을 택해서서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7년간 흉년이 들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나라가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졌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ed다 내 집을 지키라.” 요셉은 높아질 마음을 품어에도 거저만 지 않았습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그러나 자기는 숨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주십니다. 장로들 축복합니다. 장관이 되었습니다. 장관도 보통 장관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30살입니다. 17살에 팔리 가서 13년 고생하고 국무총리 되었으니 13년 공부하고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수무침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였िका” 라고 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합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 풍년이 든 7년 동안 모든 곡식 잘 간수했다가 흉년 든 7년 동안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먹이고 다 나이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까지도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을 주어 먹이고 이사를 시켜서 돌아오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사했습니다. 형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라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람있게 살고 보람있게 일하고 11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셉은 살아 생전 보람있게 일하다가 죽은 후에도 그 유골까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지 않았 습니다.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비결

요셉이 보람있게 산 모든 원인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보든지 안보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어 달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에 정수를 주셔서 그는 천국에서도 면류관 받게 된 것입니다.

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인 가까지 오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 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선전하는 자는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복을 주실지는 모르나, 믿음으로 조심하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육간에 은혜 받을 믿습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떠나거나 복을 순종하면 우리들이 행할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심 없이 믿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불행한 친구 끊어 버리고 시간 빼앗기지 말고 돈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물론 기도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 가는 길을 열게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 주실 줄 믿 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밑에서 일할 때에 충성하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랫 사람으로 원망하는 사람은 원수만 될 것입니다. 남을 원수라 여기는 자는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축복까지 받을 줄 믿습다.

요셉은 보람있게 살고 보람있게 갔 습니다. 천원교회의 성도들이여,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여생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보람있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 천국에 모셔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성 문 목사

피할 수 없는 선택

(마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길을 걷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나누다 잘 알려진 예수님의 설교로서 마 5:7장에 기록된 산상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13-14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들에는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니 길에 걸려서 할 인생 끝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가차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대중적이거나 재미있거나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에는 위대하신 순전한 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에 관하여 단순히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의 좋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복있는 사람의 길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의로운 사람은 악인에게 속하거나 악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련의 지혜는 바로 그 길을 걸어 아할 모든 자들에게 신실한 문지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은 의로운 삶에 열매 맺는 인생이라”.

넓은 길, 좁은 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넓은 길에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쉽고 무난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 길은 부단산의 경계선도 굴곡도 없어서 어디에서나 사방 팔방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단산에 편안하게 이 길을 따라서 걸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토록 쉬운 길이기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걷고자 합니다.

이 길은 타락자의 길이고 위선자의 길이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한껏 죄를 허용하는 길이고 자의적인 생각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도덕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경계선이 분명한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실하고 신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바로 그 엄격함과 분명한 조건 때문에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예수님은 두 개의 다른 문, 곧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조건 없이 환영하는 넓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인

내 앞에 두었나니”(산 30:15).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물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산 30:19).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넓은 길과 넓은 문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신명기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지나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길의 종착점

넓은 길을 걷고 넓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중심이 원하는대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매달려 있는 자들로써 결국에는 멸망할 자들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

은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술에 인박이고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서 죄를 즐기고 자신들의 상상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도 발버둥칩니다. 반면,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로서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들의 등에는 세상의 잔인함에 의해 찢긴 채찍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세상으로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가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죄악에서 등을 돌린 채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희망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자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 가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넓고 쉬운 문을 택할 수도 있고 좁고 어려운 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치고 갈 수 있는 문,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문, 또한 다수가 가는 문, 그리고 소수가 가는 문 앞에서 여러분은 중립지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문은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다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예’와 ‘아니오’가 있는 문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나’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처럼 이성적인 이중적인 대답을 좋아합니다. “한편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회방식은 파멸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이중적인 중간자적 사고 방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확정한 선택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피할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순결의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십시오.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간적인 의와 자부심과 사치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한 문이 없습니다. 반면, 좁은 문은 그 문이 바를 구명처럼 작고 좁아서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마 19:24). 따라서 이 문에 들어가기려면 모든 것들을 뒤에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죄와 이기적 야심과 탐욕, 돈, 명예, 권력 등 심지어 필요하다고 가족이나 친구가 지라도 다 내려놓아야 가야 하는 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자신을 부인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 통게이터처럼 통행료를 물어야 하는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옴이 풀을 얻으리라”(요 10:9). 아멘. 이 좁은 문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이 두 길과 두 문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종착지로 인도합니다. 이 두 개의 완전히 대조되는 길들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 그토록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창조주시오, 인간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이기에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과 기쁨, 평화와 사랑 등 모든 좋은 것들을 완전히 부수뜨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인도하는 파멸의 길입니다. 눈물과 비탄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어려움이 많습디만 그 길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생을 고개를 이루어 할 뿐 아니라 영차 이 교세를 완전히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없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 곧 많은 사람들과 적은 사람들을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들은 대중적이고 즐겁고 사회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VISION-7000 복음화 운동

이 경 재(제사, 고등부 교사)

이렇게 시작하였다

6월 26일 VISION-7000 복음화 운동본부가 고등부에 창설되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젊은이'를 위한 원한 발걸음을 12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시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직을 원성케 하고 8월 31일까지 기도원에서의 모임과 금요기도회 후 회의 및 기도모임을 통하여 9-10월에 있는 전도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놀라울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번호 조직적으로 전도를 해 보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먼저, 360명의 기도후원자를 세워 주시고, 교사들의 기도로 전도하게 하셨다. 또한 5월에야 후미 수요일에 후 후원들의 모임과 통성기도, 위원들의 일일이 한개 금식기도, 2주간의 새벽기도회, 12개 고교 앞 전도, 2차례의 전체 교사기도회, 각 과별 학교물로서 연계활동 및 학생회 활동인 코이노니아의 밤 행사를 12월에 10월 23일로 앞당기며 총동원 주일도 10월 24일로 정해져 더욱 기뻐했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전도지 및 서신, 고등부 소개서, 초청장, 포스터, 팸지 등을 자체 제작하며 신임생에게 줄 선물 등 하나하나 준비하시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서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심 같았다.

학생과 교사들은 대신자를 통해 기도하며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코이노니

아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고등부에 형성된 하나님의 사랑함을 느끼게 했다. 행사 당일 각 학교에서 초청된 중창단 학생들이 열성있는 모습과 초청된 학생들을 반가워 하며 찬식으로 대접하고 각 활동부서별로 부스(booth)를 만들어 고등부를 만났고 소개하는 등, 대체로 큰 행사가 10월 23일밤을 은혜롭게 장식했다. 마무리 청소를 마친 후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학생들이 등그라운드 모여 밤하늘 아래 교회 마당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밤 '예수 사랑하심' 아니던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할 것이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초청된 저들의(284명) 마음에 잘 박힌 듯과 같이 되게 한 것들을 기대하며 총동원주일이 다음날(24일)을 기다렸다. 이 날도 65명의 신임생이 교회에 출석한 결과 2달 동안 총집계된 인원이 387명(조선진 86명,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 84명, 무표시 33명, 타교회 출석자)에 이르렀다. 2개월여 전도하는 동안 사탄의 공격도 많았지만 기도용사들의 기도자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충분히 대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기쁨과, 계획보다 부족했던 예산이 교사들의 참여로 채워짐으로 놀라우리 만치 막 갖게 하셨다.



'코이노니아의 밤'을 마치고

갈릴리안 안락에서 진행된 이번 코이노니아의 밤은 밖에서는 학생회와 각 부서들이 자신들의 부서 특징을 살려서 각종 전시, 이벤트, 홍보 활동을 진행했고, 안에 서는 학생들이 손수 준비한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다음에 소개되는 글들은 코이노니아의 밤을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저자들이 고등부 홈페이지



박경진

사실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두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무튼 뿌듯했구요. 요즘 전 은혜와 감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의 밤(코밤)을 준비하면서 더 고령해 되었구요. 이번 코밤, 세상과 비슷한 게 없었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구요? 밀려나고 코밤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김 용

아-네-제가 이번 코밤때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처음이었음. 정말로 뿌듯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선교부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교부 모두에게 정말로 고마워요. 전 이번 일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고 저 자신도 어느 정도는 만족했어요. 또한 한번호 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앞으로 어디든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할 거예요. 좀 힘들었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감사도 감사.

박교상

코이노니아 준비하신 많은 분들, 각 부서의 여러 분들과 회장단,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많은 사람들이 와 주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여하간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런 안절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헛지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부 문서팀)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

김 은 진(대학부 4학년)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Abba Father)". 중동부대 선생님이 하시던 분만공부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다.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틀린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버지께 대화하는 듯한 나의 모습에 그때 내에게는 참 어색했고 지금도 그 충격을 생생히 기억한다.

"abba..." 지금은 내가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본다. 아버지께 대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나 자신을 제약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생각을 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과 영혼으로 느낀다. 때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나의 무력 때문이라던 단 하나라도 아버지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천지의 창조주 앞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보아라. 항상 빈손으로 나아가기 커리며 '내 수줍음을 도려'를 양말 가득 담아 들고 초라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들.



그녀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은진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해. 너를 위해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는 것을 너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따뜻한 사람의 눈길로 바라보는지 아니? 나는 만족하고 만족하기를 잠잠히 바라본단다. 내가 너의 때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는지 아니?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 한 줌 흙에 불과한 나를 그분께 의지하고 사랑받는가. 사랑받는 나를 그분은 왜 사랑하는가. 왜 거머쥔다. 나를 그분은 도대체 왜 사랑하는가. 왜! 왜! 왜! 이제서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는 '은혜'라고 부른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恩)로만 약한 자는 '보배' (珍)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유 미 나(대학부 3학년)

지난 대학 2년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교회 중심이었다. 토요일, 주일이면 아침 9,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회에 있는 것은 기본으로, 주중에도 몇 번씩, 몇 시간씩 교회를 드나들었으며, 일주일의 7 일 중에 교회는 사람이 없는 날이 없었다. 방학이 되면 학기 중보다 훨씬 더 바빴다. 나 나름대로는 교회 적응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난 2년 대학 생활은 한 마디로 실례했다. 학교 관련 뒷통수나 MT, 동아리에 참여하려 했으나, 교회일이 인해 너무 바빴다. 1학년 때 그나마 학점은 좋았으나, 2학년이 되면서 공부도 무너졌다. 지금도 학교에 들어서면 이색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날이 있었다. 3학년으로 복학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두렵기까지 한다.

나는 '교회=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나도 이미 지적했듯이는 알고 있었다.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교회 사역만이 나의 삶이 가득 차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삶의 존재를 망각할 정도였으니. 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의 기본적인 건강생활 - QT, 기도, 말씀 읽기 - 은 영망이

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

나의 삶과 생명이 회의를 가지게 된 나 지난 6개월간 DTS(예수제자훈련 학교)에서 훈련받게 되었다. 생각,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고,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변했다거나 성품이 온유해진 것은 아니다. 갑자기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고, 나의 집에서의 행동이나, 사 람들과의 관계면에서 능숙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정말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 이것저것 교회의 일들도 또다시 나의 삶을 채워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배려하신다. 이제 생명의 나무를 내앞에서 사역으로 무뎌지지(가리지) 않은 나의 삶을 노출시킨다. 사실 이렇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일들로 채워져 있던 시간들이 비게 되면, 시간관리 못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나의 전례 훈련되지 않은 삶이 드러난다.

영양부족한 날이 지났었다. 맥이 빠진 다. 자책감이 들기도 한다. 쓸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체들소식 / 나를 바꾼 한마디

지체들 소식

영아부

사랑스런 아기를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새 친구 초청잔치에 19명의 친구가 영아부에 등록되었다. 얼마 후에 안거는 예배하기, 영아 손 잡고 나온 썩직한 아기, 아빠 엄마와 함께 온 특별한 아기 모두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런 아기들이다. 주중에 교사들의 전화로 여러 번 심방하여 얻은 소중한 결과이다. 이날 장로님 말씀에 우리가 전도한 친구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전화 연락과 심방으로 영아부에 등록할 수 있기를 바라시며 교사들과 약속했다. (송혜경 통신원)

중등1부

충동원 전도주일

지난 주일 하반기 충동원 전도주일을 맞아 그 동안 중등1부 친구들이 기도하며 작성했던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교 말씀은 김진식 목사님께서 맡아 주셨고 '생명의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35-43 말씀을 전해 주셨다.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생명의 증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일들을 통해서 중등1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며 그들의 삶이 곧 전도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김병진 통신원)

중등2부

시한부·멀티미디어 도입으로 신선한 충격

지난 10월 30일 오후 갈릴릴루에서는 중등1, 2, 3부가 연합하여 '시와 찬양의 밤'을 개최하였다. 예배, 시와 찬양, 리셉션으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멀티미디어 기술을 도입하여 이전에 접할 수 없었던 자극을 보여 주었다.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입에서गर가를 헛게 쳐들어 서로를 격려했다. 이 밤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을 설레이게 한 밤이었다. (손은경 통신원)

청년2부

"죽도록 충성하라"

지난 주일 실시된 제6기 회장단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지게 끝났다. 회장에 김동석 씨, 남부회장에 정성수 씨, 여부회장에 이현숙 씨가 각각 뽑혔다. 제비뽑기는 사람이 해도 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며 장로2부 전 회장이 축하했으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청년들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파워 포인트)를 이용하여 영상 제작하여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임팩트 있고 생동감 있게 함으로써, 2000년대를 준비하는 앞사가는 청년2부의 새로운 면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이해적인 신년부회기였다. (백명자 통신원)

장년3부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한 충동원주일

10월을 회개 회개와 친목의 달로 정하고 10월 7일 교사들이 모여 먼저 기도회를 가졌다. 장기 결석자를 점검하고 심방하여 결석자를 줄이고 헌 제직 학생들의 100% 출석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원을 돕으며 주일마다 주일마다 장년3부가 성경으로 찬양하며 되기를 기도했다. 10월 11일부터는 교사들이 금식기도에 들어 하나님께 상달될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 충동원 주일이었다 지난 31일은 충원의 60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염미숙 통신원)

2교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파스칼 햇빛을 받아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이 가을에 지난 10월 30일 오후 5시에 바나나홀에서 태신자 충동원 잔치를 열었다. 서광진 목사님이 4명의 지체 영아를 소개하고 '여기서'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린 후, 교구장 김기원 장로님의 성경 말씀이 읽히고 교구 식구 소개를 하였으며 제프리에게

시간을 통해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을 주고 받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어지는 만나홀에서의 애환과 다파를 나누며 73명의 태신자와 175명의 성도가 함께 하마로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풍성한 잔치에 참여했으며 지속적인 전도와 양육이 계속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상해 통신원)

9교구

태신자 초청 총력 전도 은혜 중에 마쳐 "이제는 양육에 힘쓰자"



지난 31일은 태신자 초청 총력전도 주일이었다. 청년1부 찬양팀이 교구 모임 30분 전부터 찬양으로 태신자들을 맞이했고 여전도회에서 찬복을 곁게 입고 안내하며 온 교구 식구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다. 교구 목사님께서 '새 귀를 쫓'(롬 6:16-17)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주일이라는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자는 말씀이었다. 2부 순서로 요엘복창단의 특송과 청년1부 낙도원의 연극이 있었고 지역별로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신자들 중에서 오신 분들이 57명이었는데 7지역에서 사시는 초신자 11명씩 성도님이 남편과 딸, 사위, 친구들을 모시고 와서 전도환 상을 탔다. 그 동안 총력전도 주일을 위하여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위에 설 때까지 열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을 계속하고 또 이번호 나오지 못한 태신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정옥련 통신원)

12교구

"이렇게 재미있는 교구 보셨나요?"

그동안 영성훈련 및 새가족 초청집회를 개최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던 영성훈련의 날인 10월 28일, 친구를 초청하려고 집에 모셔 하룻밤을 같이 자고 함께 오신 집사님도 겹쳤다. 개회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 후 새가족 환영 및 친교의 시간이 있

나를 바꾼 한마디

나의 나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권 영애(연사, 권사회 4회회장)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나는 너무나도 맹목적인 삶을 살았습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어디 있는지 소정 아닌 소정, 귀머거리 아닌 귀머거리로 반세기기를 뜻없이 흘러 보냈습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끔찍한 어려움이 닥쳤습다. 무엇 하나 이루어지고 두려움이 없었던 내가 신장암이란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다. 바로 7년 전 93년도에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최인을 사랑의 책적으로 죽음에서 소생케 하시고 오늘에 이르까지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다. 시편 74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를 사랑하시라'가 나의 고백이 되었습다.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여생 죽도록 충성을 다 하겠습다.

었다. 간단하면서도 짜임새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변장한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은 배를 쥐고 눈물이 나도록 웃음이 터지게 했고 마음껏 웃어보는 시간과 줄다리기 등을 통해 새가족과 마음을 열고 지체간에 하나됨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특강이 있었다. 또한 지난 주간에 임직받은 내 분의 권사님의 인사와 원로원 장로님들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에 생일 축하시절을 마련하고 생일을 맞이한 성도를 축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아가까지 하고 재미있는 교구 보셨나요? (이규숙 통신원)

직장인기
사람의 도리

노경 재(청년부)

10월 2일 토요일

눈이 하나이고 콧구멍이 하나인 사람. 출근을 하자마자 내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사람. 사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나의 프로그램인(?)을 심본 발휘하여 귀족 - 침었다 사조였던 것 같았다. 이번은 원 본에서 있어서 제 수실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얼굴 중앙에 조금 남아 있는 코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거의 콧구멍 하나만 달랑 있는 셈이었다. 그런 몸으로도 열심히 구구학들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나는 이 일 수 없는 짜증은 무서워 버렸다. 타인의 아픔에 비교하면 좀 미안한 것 하지만, '하나님! 감사하네!'. 건강한 몸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음이."

10월 5일 화요일

오늘도 스타킹이 저지(?)가 스타킹을 선물로 주고 가셨다. 설임 인경이 끝나고 나면 그 아저씨는 항상 슬그머니 대충 포장된 스타킹 제 컬래를 책상에 놓고 가신다. 그러지 않으려고 편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아저씨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면 표현을 하는 것이 도리지요"라고 수줍어하시며 손을 뻗어 지으신다.

사람의 도리 - 그런 어떻게 표현하는 결과? 그럼, 난 그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다하고 사는 결과?

10월 8일 금요일

"도리! 난 혹시 예수님이라고 들어봤니?" 일주일 전쯤 나의 사랑스런 친구 성옥이가 내게 물어왔던 말이다. 그곳 이마를 하여 주라는 10월 중순쯤 휴가를 내서 다녀오자 우리들의 믿(?)을 속삭였다. 서로 다른 일인 것 처럼 같은 날자에 휴가를 상사와 동료들 몰래 낸다는 은밀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아! 그러나 성옥이의 배신. 요즘 한참 바쁜대 자기가 휴가를 내면 일이 쌓여 같은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12월쯤으로 무리는 게 좋겠다고 나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물리! 난 그 계획 때문에 요즘 혼자 얼마나 들뜨고 있나! 즐거워!" 등하며 일의 내일을 버렸지만, 퇴근하고 두루한 소정에 들렀다 가자며 "내가 저녁밥 맛있는 거 사줄게" 하는 성옥이가 믿지 않다. "성옥아! 난 너의 그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좋아. 그런 너를 난 사랑한다."

